

2021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 통보일자	2021. 06. 11.
재적위원	9명

1. 일시: 2021. 6. 15.(화) 14:00 ~ 15:00
2. 장소: 산학협력단 3층 중회의실
3. 참석위원: 이민창, 정홍용, 김광원, 송호찬, 조정욱, 유민우 (6명)
4. 불참위원: 이계원, 박윤산, 안창선(3명)

※ 관련 참석자

- 조선대학교: 이기자(간사), 윤경원(재정예산팀 직원)

5. 안건: 2021학년도 교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차 회의

6. 회의 내용

- 이민창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2021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다.

가. 2021학년도 교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이기자 간사가 전차 회의록(2021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전체를 낭독하다.
- 이민창 위원장이 2021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내용을 요약하고, 금일 주요 안건을 설명하다.

질문: 이민창 위원장이 직원노동조합과 실무 담당부서에서 2021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이후 노사 협의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답변: 김광원 위원이 그간 합의된 내용이 없기에 특별한 협의내용도 없다고 하다.

질문: 김광원 위원이 추경의 의미가 본예산 통과 후 예산의 조정 및 절감의 과정인데 재정예산팀에서는 2021학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전부서에 공문 등을 통해 의견을 구했는지 묻다.

답변: 이기자 간사가 1회 추경은 명시 및 사고이월 반영, 긴급히 발생된 국고사업 등 추가적으로 변동이 있는 사업들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대학에서의 진행방식도 이와 유사하다고 하다. 정부에서도 작년과 올해 코로나 19와 연관된 부분만을 수 차 추경하는 등 목적에 맞는 추경을 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마지막 추경은 가결산 성격의 추경이기에 김광원 위원의 의견처럼 시행한다고 하다.

답변: 김광원 위원이 정확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전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했음을 주장하다. 직원노동조합에서 법정비용 및 국고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제외한 예산코드에서 2% 감액을 요구하였고, 일부 부서 팀장들과 논의하여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설명하다.

성과상여금 전체 삭감 전 전체 구성원들에게 예산 절감 및 기타 어려운 사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확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였음을 설명하고 진행되었어야 하기에, 현재 2021학년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 할 수 없다고 하다.

질문: 이민창 위원장이 이기자 간사에게 직원노동조합에서 주장한 전예산 2% 삭감에 대한 내부적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질문하다.

답변: 이기자 간사가 등록금 중간정산 결과 등록금 수입이 예상보다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어 올해 재정이 더 악화될 상황임을 설명하다. 어제 노조에서 전예산 일률적인 2% 삭감을 제안하였으나 본예산 편성 시 전체예산 2% 삭감은 어렵지 않으나, 이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일률적인 2% 삭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하다. 노조에서 제안한 2% 삭감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정해진 시간 내에서 각 부서에 의견을 구하여 감액하여야 하는 일이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다. 예산사업 중 국고, 대응자금, 대체사업, 법적 비용, 집행시기의 차이 등 다양한 예산사업의 성격을 재분류하여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에 단순히 처리하기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하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 19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특별삭감을 사전에 안내하고 여러 절차를 거쳤으나 이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다. 이번 또한 교직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대학의 예산을 2%씩 삭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다. 교직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면 종전에 합의해 온 방법과 같이 올해 인상된 인건비를 성과상여금 지급총액에서 감액하고 일부 예산을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였으면 한다고 하다.

답변: 이민창 위원장이 전체예산 2% 삭감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하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다.

의견: 김광원 위원이 결산을 진행했을 때 2%는 충분히 남는 금액이고, 전체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다.

질문: 이민창 위원장이 김광원 위원의 2% 삭감에 대한 전제조건은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수준으로 편성된 경우에 타당하므로 재정예산팀에서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금년도 예산편성수준에서도 가능한 것인지를 묻다.

답변: 이기자 간사가 예산이 2% 이상이 남았다고 하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하면 격차는 감소한다고 하다. 이와는 별개로 수입 실행예산의 감소로 대체되는 지출 실행예산이 감소되기에 예산과 결산액의 차이가 더 커진다고 하다. 타대학(영남대학교) 2020학년도 결산서를 살펴봐도 예산 대비 결산액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다. 조선대학교 교비회계 2021학년도 본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등록금 수입의 감소, 교원 인건비의 증가로 인해 나머지 지출항목을 긴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올해 예산은 2020학년도 재정정보다 더 어려운 구조라고 하다.

질문: 이민창 위원장이 전체예산 2% 줄이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묻다.

답변: 이기자 간사가 작년에 코로나 19 특별장학금 지급 시 특별삭감이 결코 쉽지 않았으며, 예산 항목 중 삭감할 수 없는 사업들(장학금 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가능한 항목들을 해당부서의 협의를 거쳐 검토해 보겠다고 하다.

설명: 이민창 위원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주요 논의 사항(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다.

현재의 재정상황은 2021학년도 이전 학생등록률 98% 이상으로 변동성 없는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올해의 경우 신입생 128명 미충원 및 자퇴자 증가 등으로 등록금 수입이 50억 감소될 예정이다. 본예산 상정 시 이사회의 회의결과에 따른 전제조건으로 2021학년도 적자규모 120억에서 50억 이하로 조정된 후 상정하여야 하기에 부득이 노사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상여금 110%를 삭감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학생위원인 송호찬 위원, 유민우 위원, 조정욱 위원에게 의견을 묻다.

답변: 송호찬 위원이 갑작스럽게 성과급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며, 협의 없이 삭감하는 것보다는 삭감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을 찾아가며 협의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질문: 송호찬 위원이 2학기에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질문하다.

답변: 이민창 위원장이 등록금 인상은 매 학기 초에 결정되는 것으로 2학기에는 변동이 없다고 답변하다.

의견: 조정욱 위원이 학교 재정에 대한 입장도 이해가 되나, 성과상여금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감액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찾아봐야 된다고 하다.

의견: 유민우 위원이 성과상여금 감액에 대해서는 공감에 되나 전액 감액보다는 노사가 양보하며 협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의견: 송호찬 위원이 현재 학교 상황이 어려우니 등록금 상향도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다.

의견: 이기자 간사가 2022학년도 계절학기 수강료 인상이 필요함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다.

 의견: 정홍용 위원이 교수노동조합 설립 후 권한과 관련하여 추후에 논의할 예정이며, 성과상여금 감액과 관련하여 직원노동조합에서 제시한 전체예산 2% 삭감이 전체 구성원들이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의견이며, 예산을 줄이는 과정 중 장학금 및 학생활동 등 실제 감액이 어려운 부분은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다.

의견: 이민창 위원장이 현 학교 상황과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하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재정악화 방지가 중요한 목표이며, 이 관련 지표는 적립금이라고 하다. 예전의 우리 대학 적립금(이월금 포함)은 약 2,000억 원에 육박할 때도 있었지만 2020학년도 결산기준 630억 중 건축 및 장학기금 제외한 실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200억 이내라고 하다. 이사회 50억 적자 요구는 3년간 입학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며, 4년 안에 대학이 재정적으로 버틸수 있는 구조를 만든 후 등록금 인상 또는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교비재정을 운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하다. 지금의 120억 적자예산 편성은 4년 후에 운용할 수 있는 적립금이 고갈되어 대학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에 고통분담을 통해 교직원 전체가 힘을 합쳐 재정균형을 꾀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라고 하다. GM 사태를 보더라도 적자 중에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LH처럼 적절치 않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여론의 뭇

매에서 자유롭지 않듯이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학교를 보호하면서 상생할 필요가 있다고 하다. 기획조정실장의 역할은 결국은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서 재정균형을 이루도록 직무에 충실할 수 밖에 없다고 하다. 한편, 직원노동조합 측에서 제시한 노사간의 합의 없이 성과급을 삭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고 하다.

금번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 결정 방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다. 1) 위원장의 직권 상정, 2) 심의 후 의결하지 않는 위임 상정(재정위원회 상정) 3) 조건부 상정(교직원 성과급을 기존 8월에서 다음해 2월로 지급시기를 유예하고, 12월경 추경에서 50억 이내 적자를 편성하였을 때 차액에 대해서 성과급으로 지급)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다.

질문: 정홍용 위원이 3가지 안에서 한 가지를 결정을 한다는 의미인지 질문하다.

답변: 이민창 위원장이 6월 이사회 상정을 위해서는 일정상 오늘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다.

질문: 김광원 위원이 직권 상정이 규정에 정해진 것인지에 대해서 묻다.

답변: 이민창 위원장이 직권상정 찬반 표결에 붙이는 위원들의 심적 부담을 덜고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담을 지겠다는 의미이다.

 답변: 김광원 위원이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으며, 예전의 경우에도 성과상여금 삭감 시 노사간 합의 이후 진행되어 왔으며, 성과상여금 삭감 시 노사간의 충분한 합의 없이 의결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며, 위에서 제시한 3가지 안에 대해 모두 반대한다고 하다.

교직원 성과급을 기존 금년 8월에서 다음해 2월로 유예하고, 12월경 추경에서 50억 이내 적자를 편성하였을 때 남는 차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려우며, 노조에서 제시한 방법이 교직원들이 더 노력해서 예산 절감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다.

답변: 정홍용 위원이 학생위원들이 위원장이 제시한 3가지 안건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어려우며, 교수노조도 3가지 안에 대해서 모두 반대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논의하자고 하다.

질문: 이민창 위원장이 금일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할 것인지, 보류한 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인지 의견을 물어보다.

질문: 김광원 위원이 다시 개최 시 달라질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다.

질문: 이민창 위원장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하다.

답변: 전 위원이 표결 진행을 찬성하다.

표결: 2021학년도 교비회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재정위원회 상정에 대해서
위원 6명 중 5명이 반대하다.

의견: 이민창 위원장이 금일 안건이 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부결 이후의 사항은 추
후 안내할 예정이며, 부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 상황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대책을 찾아보고자 하다.

7. 2021학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종료하기로 하고, 이번 회의록 간서명
은 위원 정홍용(교수대표), 위원 김광원(직원대표), 위원 조정욱(학생대표)이 하기
로 하다

위 회의내용을 확인함.

2021. 06. 15.

 V.T.E. 2 107

위원장

이 민 창 (인)

위 원

정 홍 동 (인)

위 원

이 계 원 (인)

위 원

김 광 원 (인)

위 원

박 윤 산 (인)

위 원

정 호 찬 (인)

위 원

조 정 욱 (인)

위 원

유 민 후 (인)

위 원

안 창 선 (인)

간 사

이 기 자 (인)

한 V b ' o - u r